

2005년 1월 22일
월요일
“ ”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치無價紙입니다.

2005년 1-2월 7호

BACK TO JERUSALEM

왜 '백투예루살렘'인가?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한 중국 지하교회의 담대한 비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원 형제·수 형제·예눅 왕이 전하는 놀라운 비전과 용기



'백투예루살렘'이란 수천 명의 중국인이 가까이 죽기를 각오하는 비전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적어도 그 이유 정도는 알아야 하리라.

처음, '백투예루살렘 운동'에 관하여 들은 것은 1980년대에 중국에 갔을 때였다. 당시에 한두 명의 설교자들이 설교 중에 이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그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중국 교회의 열망을 나타내는 정도로 생각했다. 수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중국 각지에서 온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이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꿈꾸며,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도 이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백투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게 주

신 사명으로 중국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도시, 마을 그리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다. 이 지역의 사이에는 복음으로 정복되지 못하였으며, 영적으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가 자리하고 있다. 2002년, 수많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나에게 이 운동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책, 즉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백투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이후로 주님이 중국 교

회에 주신 계획과 전략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그들이 소원했던 바, 그 열매이다. 작가로서 내 역할이란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즉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형식을 갖춰 글로 소개하는 일이다. 이 책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은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원 형제, 수 형제, 그리고 예눅 왕이다. 이 세 사람은 중국 교회 전역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며 그 중 두 명은 '백투예루살렘'을 위한 선교사 양성과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중국을 벗어나 살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도전

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기까지 이 마지막 날에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이 사명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폴 해터웨이/머리말에서

'백투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백투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불리며, 중국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슬람권 나라와 불교 그리고 회교권 나라들을 선교하고 계속 서진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중국 지하교회의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뷰 Interview

『백투예루살렘』 공저자 폴 해터웨이

『백투예루살렘』에서 보면 죽은 줄만 알았던 어린 딸이 살아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예눅 왕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중국에 이러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터웨이 씨?

폴 해터웨이: 요즘에도 중국에서는 기적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주일에 교회에 사람 모으는 정도의 기독교로 변해 가고 있고 많은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교회 내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수천 명의 복음전도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유가 없고, 잃은 자의 구원과 중국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아무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을 태우는 갈망을 보시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적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채워 주십니다. 한 마디 덧붙인 것은, 대부분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기적을 강조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백투예루살렘』을 보면 해터웨이 씨께서는 중국 선교사역 중원 형제, 수 형제, 예눅 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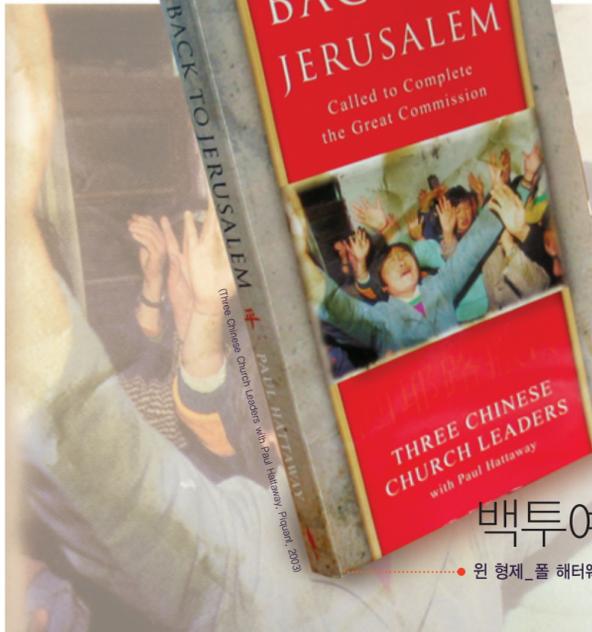
에도 여러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폴 해터웨이: 저는 세 사람 모두 깊이 존경합니다만, 원 형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 형제의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엄청난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없이는 자신이 결코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적들과 자신을 대적하여 온갖 일로 중상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오늘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백투예루살렘 운동'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폴 해터웨이: 저는 하나님께서 백투예루살렘 비전으로 중국의 교회를 일으키신 이유가, 지

난 50여 년간 중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전 세계 기독교에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중국에 고립되어 엄청난 압박과 곤경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지하교회(가정교회) 성도들은 서양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처럼 오염되지 않고,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공산주의자든 힌두교인이든 세상 어디든 적합하게 전할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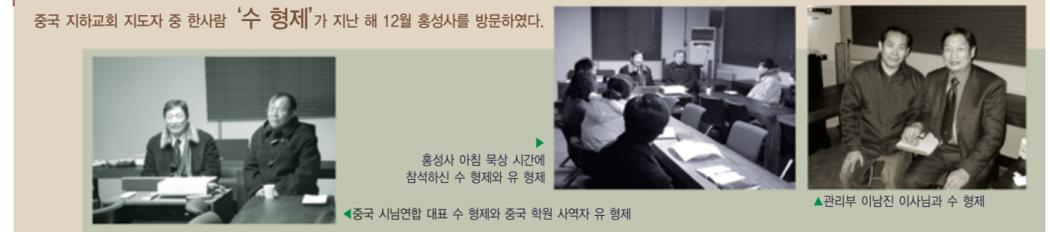
(이 인터뷰는 2005년 2월 22일, 폴 해터웨이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전문은 <교회보> 3월호에서 볼 수 있다. 폴의 사진은 중국 사역 보호를 위해 실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게재하지 않는다.)

진행 · 정리 ● 한미영(myhan@hsbooks.com)



백투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 원 형제_폴 해터웨이 외 지음/류용렬 옮김/A5신변형/사진 수록/3월초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중 한사람 '수 형제'가 지난 해 12월 홍성사를 방문하였다.

홍성사 아침 묵상 시간에 참석하신 수 형제와 유 형제

중국 시남연합 대표 수 형제와 중국 학원 사역자 유 형제

▲관리부 이남진 이사님과 수 형제

온고지신 溫故知新

이제 다시 김성일, 그의 땅끝 소설을 권한다.



- 땅끝에서 오다**
민음의 글들 22/A5신/360면/8,000원
- 땅끝으로 가다**
민음의 글들 30/A5신/360면/8,000원
- 땅끝의 시계탑**
전2권/민음의 글들 88·89/A5신/각권 328면/각권 6,000원
- 땅끝의 십자가**
전2권/민음의 글들 121·122/A5신/각권 296면/각권 7,500원
- 빛으로 땅끝까지**
전2권/민음의 글들 145·146/A5신/각권 308·324면/각권 6,000원

지면안내 紙面案内

- ☞ - 왜 백투예루살렘인가? **01**
- , £ - 레프트 비하인드 5 **02**
- ₩ 1.우리와 하나님
2.키워드로 풀어나가는 청년사역
3.예수님의 마음을 달아가는 삼
4.황진이
5.심판과 은혜
6.오디오 새신자반 **03**
- £ 1.백투예루살렘
2.이슬람 신화 깨기, 무슬림 전도하기
3.오직 나의 신으로(가제) **04**
- ₩

시 읽기

그분이 홀로서 가듯

구상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천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 속에서
진리가 귀찮고 슬프더라도
나 혼자 無力에 지치고
번번이 敗北의 쓴 잔을 마시더라도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正義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英雄的 氣色도 없이
아니, 볼품 없고 병신스런 모습을 하고
그분이 復活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이 시는 큰소리로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글들 4
<그분이 홀로서 가듯>, 7쪽



소설 읽기 1



오후에 공항에는 그날 저녁 일찍 출발해서 다음 날 아침 런던에 도착하는 팬 콘티넨탈 항공 소속 여객기가 있었다. 저드의 위조 신분증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톰슨 씨라고 부르자 저드는 기분이 좋아졌다. 일등석은 아주 비쌌지만 그 747편에는 남아 있는 다른 좌석이 없었다.

머지않아 부모님이 자신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공항에 두고 간 차를 발견할 것이고, 곧 팬 콘티넨탈 항공 여객기의 승객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드는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영국에 숨어 있을 작정이었다. 설사 발견되어 다시 미국으로 끌려간다면 해도 자신의 의사가 부모님께 충분히 전달된 뒤이길 바랐다.

자신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내겐 자유가 필요해. 그래, 바로 그거야. 저드는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는 성인 대접을 받아야 마땅했다. 이래라저러라 소리 듣는 게 이전 정말 신물이 났다. 저드는 자기 혼자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걸 가족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 계획대로 혼자서 런던에 간다면 그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저드는 통로쪽에 앉았다. 옆 통로 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는 자리에 술병을 세 개나 올려놓고 있었다. 그 사람 옆 창쪽에는 한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 저드는 정말 예쁜 승무원을 보았다.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이름표를 봤더니 '해티'라고 적혀 있었다. 저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지만, 얘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저드에게 샴페인을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신분증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긴 없었다. 저드는 신나고 또 흐뭇했다.

"얼만가요?" 저드가 물었다.
"일등석에서는 무료입니다, 톰슨 씨." 그녀가 말했다.
전에도 몇 번 샴페인을 마셨지만 별로였다. 그러나 자리 앞에 샴페인 잔을 하나 두면 멋져 보일 것 같았다. 저드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런던으로 출장을 떠나는 사람처럼 행세할 참이었다.

레이포드 스틸 기장이 방송을 통해 비행경로와 현재 고도를 안내했고, 히스로 국제공항에는 내일 아침 6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저드 톰슨 2세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은 생애 최고의 밤이었다.

1. 반항아 비키

비키 번은 열네 살이지만 열여덟 살은 되어 보였다. 새빨간 머리에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비키는 최근 들어 남녀 모두의 시선을 끌 수 있게끔 옷 입는 법을 터득했다. 비키는 가족류를 선호했다. 검은 단화, 짧은 치마, 달라붙는 상의에 장신구를 잔뜩 달고 거의 매일 머리 모양을 바꿨다.

비키는 드센 아이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의 다른 애들은 이동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질이 떨어진다며 무시했기 때문이다. 비키의 친구들은, 그녀의 양숙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키와 "같은 부류"였다. 비키와 이동주택에 사

는 동네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 첫날 통학버스에 탔을 때, 앞으로 학교생활이 어떻게 급세 알 수 있었다.

통학버스에는 자리가 없었다. 비키 동네가 마지막 노선이었음이 분명했다. 이동주택 마을에서 그 버스를 타는 12명 가운데 첫 번째 2명이 앉을 한 자리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앉아서 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비키는 그런 생각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 담배 냄새와 고약한 입 냄새를 퐁퐁 풍기면서 교과서는 절대 가지고 다니지 않는 두 명의 고학년 남학생들이 우격다짐으로 제일 앞줄에 서기 때문이다.

버스에 탄 애들 중 아무도 이동주택 마을 애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할까 봐 겁내는 눈치였다. 그리고 물론 아무도 '이동주택에 사는 인간말똥' 옆에 앉고 싶어하지 않았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차에 오를 비키는 앉아 있던 아이들이 코를 막는 모습을 보았고 저희들끼리 뭐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키와 친구들을 뺀히 쳐다보면서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더러운 물건 대하듯 몸을 사렸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여학생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버스 운전사가 모두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이동주택에 사는 그 고학년 남학생 둘—벌써 자리를 잡았다—이 일어선서 험상궂은 표정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자집 애들' 멧이 마지못해 서로 붙어 앉으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 첫째 날, 비키는 맨 나중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녀는 흑인 학생들 대부분이 앉은 앞자리를 쳐다보았다. 그 애들은 버스에 제일 먼저 올라타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테니까. 다른 애들은 그들과도 함께 앉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런 이동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더했다. 사실 비키 친구들은 흑인 애들에게 험악한 욕을 해대고, 그 애들이 같이 앉자고 해도 단박에 거절하곤 했다.

비키는 어릴 때부터 흑인 애들과는 상종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이동주택 마을에는 흑인이 한 사람도 살지 않았다. 피부색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왜 열등하다는 건지 비키는 알 수가 없었다. 비키 아버지의 말로는 흑인들은 게으르고 범법자들인데다 멍청하다고 했다. 그러나 비키가 보기에 아버지야말로 그랬다. 적어도 2년 전까지는 말이다.

비키가 열두 살이 되던 그 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그전까지 비키 부모님은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동네에서 댄스파티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선 술 취한 남편들이 여자친구와 부인들을 두고 다투었다.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댄스파티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경우 싸움을 벌였던 몇몇 사람이 유치장에 끌려가 밤을 보내고 오기도 했다. 비키 어머니가 보석금을 내고 아버지를 데려온 적도 많았는데, 그런 경우 부모님은 그 문제로 주말 내내 다투곤 했다.

▶16~22페이지까지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매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기쁨과 생명의 축제에 여러분 모두를 무료로 초대합니다.

2005년 3월 31일 밤 9시 4월 28일

1부 9부 뉴트리팝소악스 오케스트라 Joy 樂 이재철 목사

2부 LogOs 道 이재철 목사

'사랑의 초대' 메시지는 전도용 소책자(미니북+테이프) 시리즈로 정식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 번 들으면 꼭 선물하고 싶은 메시지!"

- 생생한 감동이 살아 있는, 이재철 목사의 오디오·메시지북

- 내게 있는 것** 양장 케이스/Tape 4개/9,500원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에 도전하는 깨움의 설교! '황제의 논리-말론(론)의 논리'가 득세하는 시대에 '주님의 논리-영원의 논리'를 갈파하는 메시지. 교경협 주최 영성 수련회와 부산 부전교회 사경회 메시지 실황 녹음. ※ 믿음의 논리/ 믿음의 자리/ 믿음의 원천/ 믿음의 틀
- 인간의 일생** 양장 케이스/테이프 5개/13,000원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 주제 메시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한 이 설교는, 우리에게 자기목망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멘'의 삶을 살도록 잔잔하면서도 뜨겁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 사경회 마지막 날 인생의 후배이자 목회의 후배를 앞에서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던 가슴 뜨거운 설교!
- 참으로 신실하게** 양장 케이스/Tape 4개/각 120분/9,500원
기독교 역사(歷史)는 유구히도 말씀의 역사(使事)는 죽어 있는 유럽 한복판에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는 3년간 걸어올린 영성의 메시지. 뉴질랜드 연합 부흥집회 초청 설교 실황 녹음. ※ 말씀-그 절대성/ 구원-그 영원성/ 삶-그 현장성/ 믿음-그 완전성
- 비전의 사람** 양장 케이스/Tape 5개/각 120분/15,500원
장신대 신대원 신앙사경회에서 기림박수를 받았던 바로 그 설교! 비전을 가장한 눈먼 아량이 편만한 시대에 진정한 비전을 일깨우는 메시지. ※ 눈먼 사람/ 비를 벗은 사람/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질문과 답변
- 새신자반** 양장 케이스/Tape 20개/각 60분/49,000원
이재철 목사의 기초 신앙 특강 제1탄, 흥성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총10회에 걸쳐 열었던 '새신자반 특강' 오디오북 출간! '새신자반'은 저자의 주님의교회 목회시절부터 뜨거운 호응과 참여로 널리 알려진 기초 신앙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번엔 새롭게 녹음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 강의안 첨부
제1강_하나님은 누구신가? 제2강_나(인간)는 누구인가? 제3강_예수님은 누구신가? 제4강_성령님은 누구신가? 제5강_성경이런? 제6강_기도란? 제7강_교회란? 제8강_예배란? 제9강_크리스천의 교회생활 제10강_크리스천의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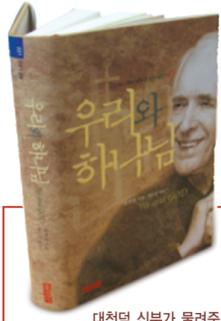
이재철 목사의 2005년 신간 예고

매듭 짓기
한국 교회의 장년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

성숙자반
이재철 목사의 기초 신앙 특강 제2탄!

홍성사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대천덕 신부가 들려준 신앙 실천서 ②
우리와 하나님 We and God

성경을 믿는 데는 보수주의자처럼, 실천하는 데는 진보주의자처럼!
"대 신부님의 메시지는 이론적인 강해라기보다는 '해 보라' 하는 식의 일종의 강한 도전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대로 '시도해 보라' 실험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건축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예수님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검증해 본 성장적인 원리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그저 머리로 이해하거나 단지 설교하는 데 참고로 하는 정도도 그치마라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의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 '믿고 나서'에서

■차례 1부 기도생활: 예수님의 기도,속사람 치유의 기도
2부 교회생활:공동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의 토착화
3부 사회생활: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경제관리

대천덕 저/예수원 역/믿음의 글들 221/A5신변형/480면/1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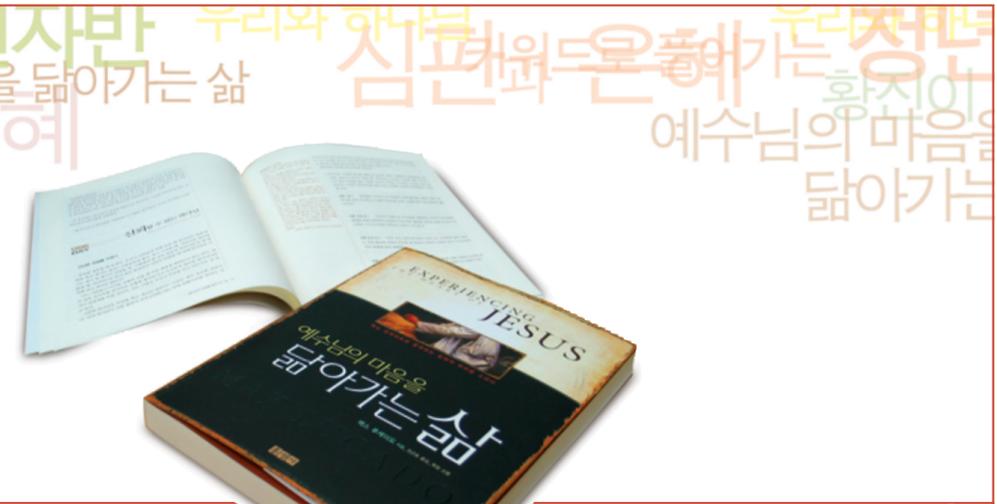
천안중앙교회 청년 부흥의 네 가지 키워드
키워드로 풀어가는 **청년사역**

청년사역, 핵심을 붙잡아라
"청년사역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숙고하며 기도하던 중 예배(Worship), 전도(Evangelism), 양육(Education), 기도(Prayer) 이 네 가지 요소를 핵심가치라고 보았고 이 네 가지를 앞으로의 청년사역에서 우선순위로 두기로 하였다.

Worship [예배] - 감격,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Evangelism [전도] -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복음 증거
Education [양육] - 청년 리더로 자라가기 위한 양육
Prayer [기도] - 깊이 있는 기도

'위프'(WEEP)는 '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WEEP을 중심으로 천안중앙교회 청년부의 정체성을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청년'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눈물을 주십시오. 애통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에 참 많은 눈물을 주셨다." - '프롤로그'에서

양형주 저/음/A5신변형/480면/9,000원



구상 시인의 문학총서 네 번째,
희곡·TV드라마·시나리오 모음집
황진이

구상 시인의 문학총서 네 번째,
희곡·TV드라마·시나리오 모음집
"이렇듯 그 작품들을 한 권으로 묶으면서 되읽고 느끼는 바이지만, 이 속에 담긴 존재나 당위(當爲), 즉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나의 삶을 통한 해답(患答)이 전부 들어있다 하겠고, 또한 나 나름의 '오늘에 서부터 영원을 사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 '저자 머리말'에서

구상 저/음/A5신변형/400면/양장

■차례 1부 희곡: **황진이**
2부 TV드라마: **황진이**
3부 시나리오: **황진이**

구상 저/음/A5신변형/400면/양장



국내 유일의 단권 소년지서 강해 시리즈 ⑩ **스바나 강해**
심판과 은혜

그림에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바나서는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크게 혼드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혼드시고 주위 나라들도 혼드시고, 오종도 하나님은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러로 흔들고 계시며 북핵 문제로 흔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에서

김서택 저/음/A5신/152면/6,800원



새신자반

새신자 양육 · 기초 신앙 교육의 믿음직한 길잡이
"Audio 새신자반은 흥성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10회에 걸쳐 열린 이재철 목사의 '새신자반' 특강을 실황 녹음한 것입니다. '새신자반'은 저자의 주님의교회 목회시절부터 뜨거운 호응과 참여로 널리 알려진 새신자 및 초신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그간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한인 교회에까지 꾸준히 소개되어 왔으며 단행본으로도 정식 출간되어 한국 교회와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오디오 테이프가 녹음 시기가 오래된 데다 음질이 떨어져 끊임없는 개신 요청이 있어 온 차에, 흥성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새신자반 특강'을 실황 녹음한 특별판으로 (Audio 새신자반)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 '일러두기'에서

이재철 저/양장 케이스/Tape 20개/각 60분/49,000원/강의안 첨부



이슬람 신화 깨기, 무슬림 전도하기

중동 전문가 김동문의 이슬람 문화 · 선교 길잡이

너희가 이슬람을 아느냐!
'할람'과 '하람'의 차이?
거짓말은 되지만 화내는 것은 안 된다?
히잡과 차도르를 벗어던진 이슬람 여인들의 배꼽춤?
동생애가 판치는 거리?
중동 지역 전문가로 《한겨레 21》 《미디어 오늘》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발 빠르게 중동 기사를 전해 온 김동문 선교사. 그가 14년 이슬람 사역을 중간중간하며, 최종우를 현장 속에서 직접 겪으며 얻어 낸 '이슬람 문화 속에서의 무슬림 선교 제대로 하기'의 모든 열정을 이 책에 쏟아 놓았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람 이슬람 세계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자 했다. 종교적인 편견을 넘어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나누고자 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바로 알고 무슬림을 바로 섬기기 위한 새 시대 사역자들을 기대한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꿈꾼다." - '맺음말' 중에서

책임편집자 ● 한수경 (refuge@hsbooks.com)

김동문 저/음/A5신변형/250면/예성/사진 수록

백투예루살렘

감동을 넘어, 이제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으셨다면, 이제 (백투예루살렘)에서는 '응답' 할 차례입니다!

"2000년 3월은 복음이 전세계로 침투해 들어가는 중요한 달로 기억될 것이다. 이 달에 39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이웃 불교국가에 파송되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복음은 서방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널리 퍼져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제 복음을 서방과 남방으로 파급시켜 전 세계의 미전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돌아갈 것을 보기를 열망하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교회의 생생한 비전인 동시에 다가올 세대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힘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머리말'에서

"이것은 살아 있는 교회의 생생한 비전인 동시에 다가올 세대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힘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피터 에이트/OM 선교회 국제책임자

- '백투예루살렘'에 대한 한사에서 발췌
책임편집자 ● 김혜수 (khs@hsbooks.com)

원 형제 폴 해터웨이 외 저/음/류응렬 옮김/A5신변형/사진 수록

국내 유일의 단권 소년지서 강해 시리즈 ⑪ **스기라 강해**
오직 나의 신으로 (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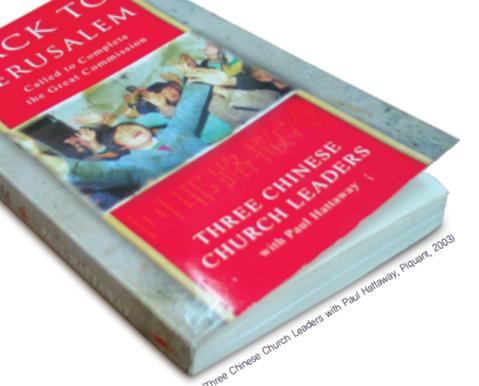
스기라 선지자가 말하는 '희망'이란?
스기라 당시 유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뜻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현재와 유사하다. 스기라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었지만, 희망 없이 살아갔고 있었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스기라는 화석류 나무 가운데 계신 달 달 분의 환상을 통해 '희망'을 말한다.

책임편집 ● 편집부 (hsbooks@hsbooks.com)

김서택 저/음/A5신변형



Back to Jerusalem



Three Chinese Church Leaders with Paul Hattaway, Ph.D., 2003

Book Shop Review 책방 리뷰

독자의 사랑에 감사하는 행사
"하늘에 속한 사람"

중로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1위 기념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사은행사와
"광 없는 30자평 응모 행사"를 가졌다.
-영풍부 오민택 과장

▲ 2004년 12월 20일

▲ 중로 영풍문고에서

